
2018 NPO 국제컨퍼런스 후속워크샵

꼬문뱅크의 과제와 방향

일시 : 2018-10-18 19:30

장소 : 평화살롱 레드박스

공동체은행 빈고

순서

- 개회 : 인사
- 꼬문뱅크 워크샵 스케치와 질문들에 대한 답변
- <꼬문뱅크 교육의 방향> - 나루 (공동체은행 빈고 대표),
- <공유지/공동체의 생성과 지속을 위한 방향> - 땡땡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
- <꼬문뱅크의 확장 및 확산 전략> - 지음(빈고 상임활동가)
- 추가 발표 및 제안 (새로운 공유지와 꼬문뱅크 제안)
- 토론 및 질의응답
- 뒷풀이

꼬문뱅크 워크샵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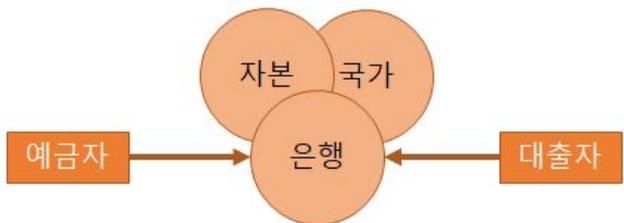
20180911





돈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만드는 변화

자본수익의 추구



교문뱅크



자본수익의 거부



출자자

이용자

연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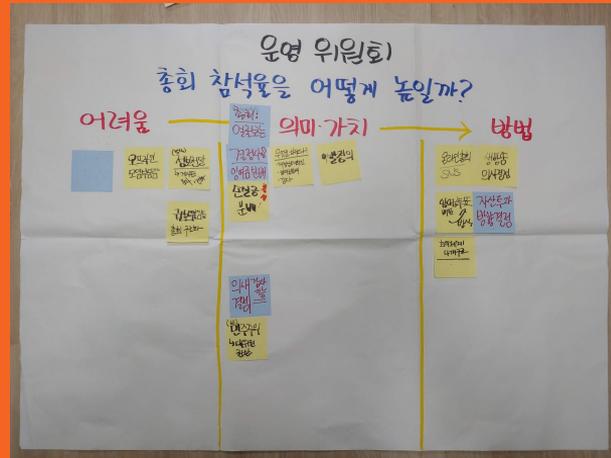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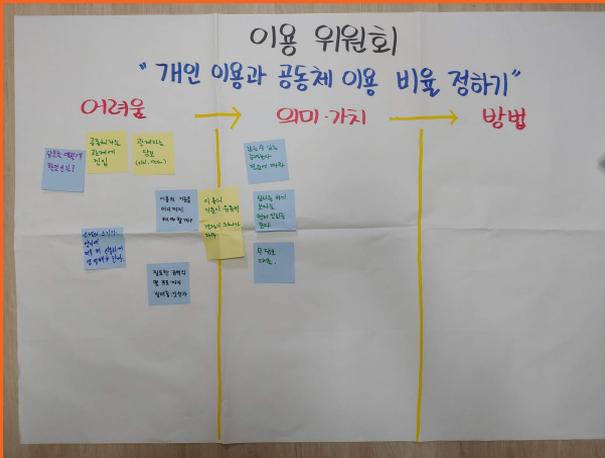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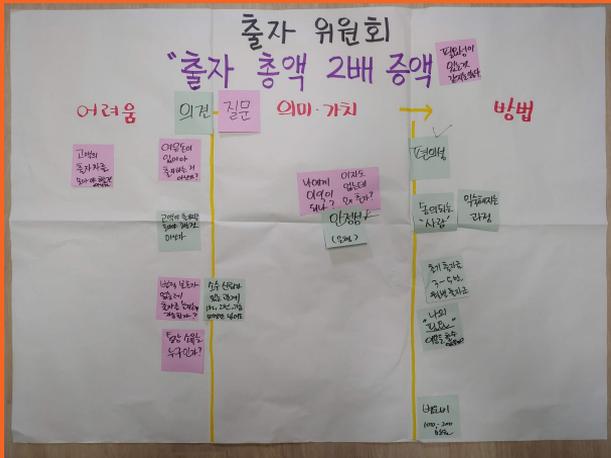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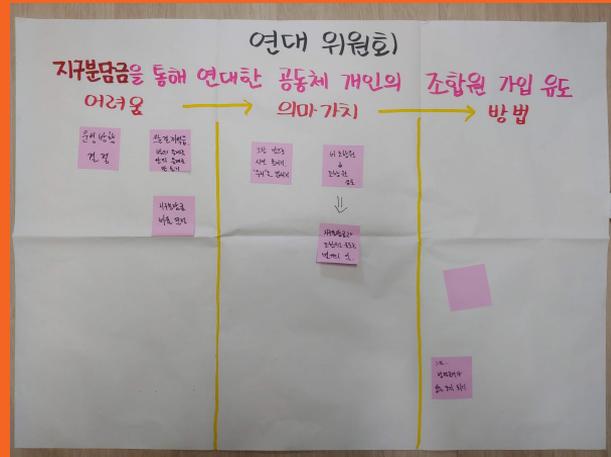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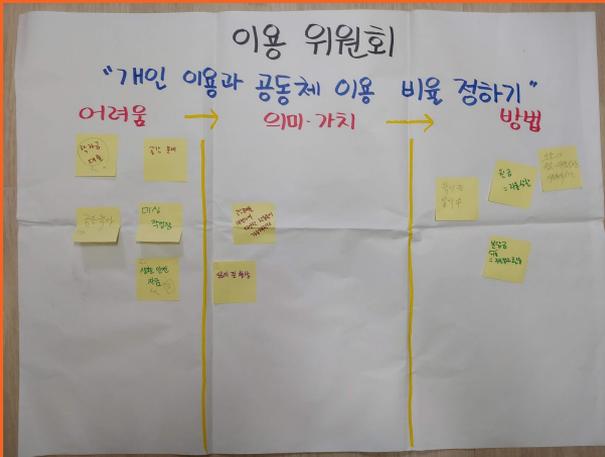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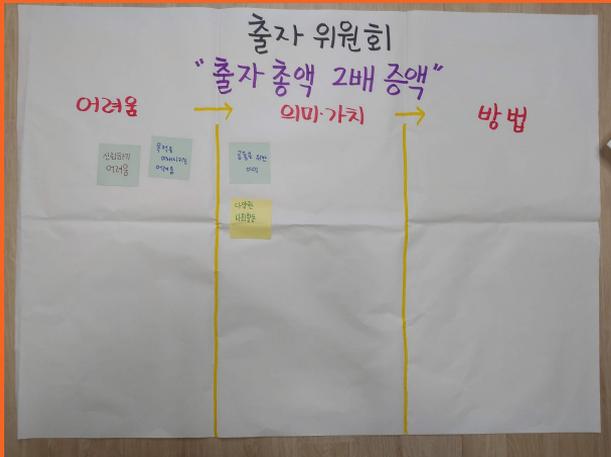
운영자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미있게 **운영**한다!

공동체은행 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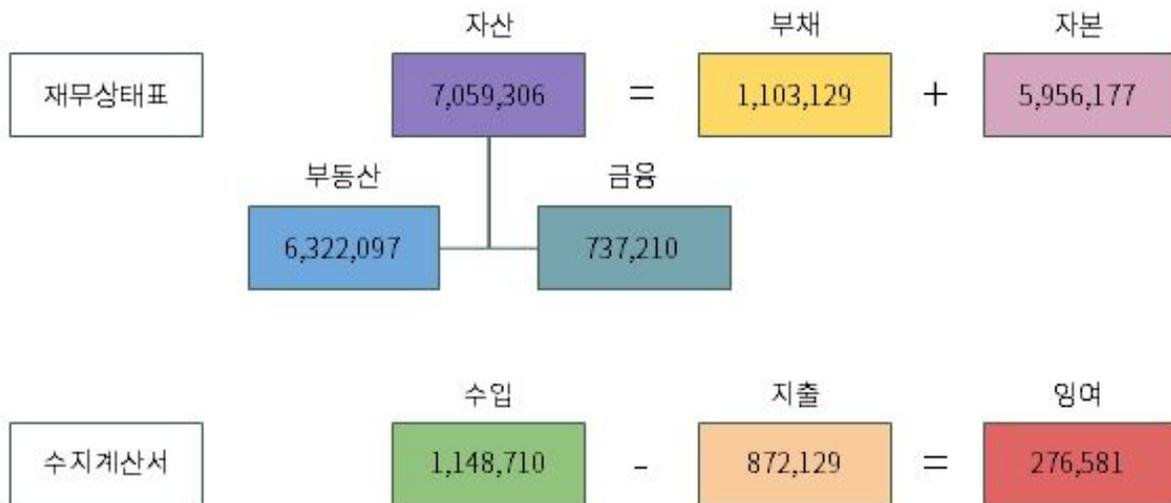




전체 구성원 재무상태표 합계

참여자 수 : 31

전체 조합원 수 : 500



공유지 가상투자 결과



NPO 꼬문뱅크 공유상태표

| | | | |
|-----------------------|----------------|------------------|------------------|
| 기존 부채 전환 1,103,129 | 예비금 291,042 | 토지/텃밭/농지 219,332 | |
| | 공유주거 200,259 | 공동카페/식당 200,259 | 공동 돌봄 시설 190,723 |
| | 놀이터/공원 152,578 | 쉐어하우스 123,970 | 휴양시설... |
| | 코하우징 143,042 | 공유사무실... | 게스... |
| | | | 마을... |



| | |
|--------------------|--------------|
| 부동산자산 전환 1,896,629 | 금융자산 737,210 |
| | 잉여금 276,581 |

빈고에 대한 소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계좌가
생기나요?

조합원들은
어떤 목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
하나요?

출자는
예금인가?
(자본)

조합원 즉
학생들도 활동
하고 있는지?

왜 비영리로
활동하나요?

보험인가?

의견 통합하는
과정의
수월한가요?

어떻게
조합원이
되었나요?

추익은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유지를
애 늘려야
하냐?

공동체를 운영하기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데?

기금이
무슨 뜻인가요?

앙여금이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꼬문뱅크 교육의 방향

나루 (공동체은행 빈고 대표)



교육(Education)

교수-학습체계
교수 행위 (teaching)+학습 행위 (learning)

학습(Learning)

학습(일반적 의미)
교육+경험, 훈련, 연습, 독학...

고문뱅크에서 우리는 왜 학습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WHY

계좌가
생기나요?

조합원들은
어떤 목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
하나요?

출자는
예금인가?
(자본)

조합원 중
학생들도 활동
하진 않는지?

왜 비네임으로
활동하나요?

보형인가?

의견 통합하는
과정의
수월한가요?

어떻게
조합원이
되었나요?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유지를
애용해야
하나요?

공동체로 운영하기
있다고 하겠는데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지?

기금이
마는 뜻인가요?

잉여금이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WHY

Learning

Unlearning

Relearning

조합원 340명

(공동체 공간 50명)

출자금 2억

총자산 3.8억

공유지 15곳

2017.12.31기준

조합원의 다양성 확대, 공간 확장

꼬문뱅크의 지향과 운영의 정합성

효과적인 대화, 조직 대화_학습,합의

꼬문뱅크는 P(what)를 위하여 Q(what)을 통해 R(why)를 하는 것이다.

꼬문뱅크의 학습은 P(what)를 위하여 Q(what)을 통해 R(why)를 하는 것이다.

반자본, 공동체, 꼬문....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꼬문뱅크를 사회적으로 확장한다.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한다.

꼬문뱅크의 필요를 체감한다.

새로운 꼬문뱅크를 만든다. WHY

그룹 내 교육/학습한다. WHAT

WHY 꼬문뱅크 설립교육을 받는다. HOW

WHAT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상상/고민한다.

HOW 공동체은행 빈고를 소개한다.

WHY 꼬문뱅크의 필요를 체감한다.

WHAT 조합원 활동을 활발히 한다. WHY

HOW 조합원 가입교육/학습을 한다. WHAT

공동체은행 빈고에 가입한다. HOW WHY

WHAT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상상/고민한다.

HOW 공동체은행 빈고를 소개한다.

WHY-WHAT-HOW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그들은 억압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민중교육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는 거라면 거실에서도 가능하다.

공유지/공동체의 생성과 지속을 위한 방향

땡땡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

인용도 공동의 합의도 없이 자기경험에서 말하기



대표가 없는

각자의 경험과 의견이 존중되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은

구성원 수 만큼이나 다양함

나는 공동체를 왜 시작했나 | 공동체의 생성



외면할 수 없는 문제제기

가벼운 선택

재미있는 시도

혼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빈곤 貧困

가깝다近い

'누구의 문제' 만은 아니다
'誰の問題' だけではない

부끄럽지 않다
恥ずかしくない

적극적으로 보여주자
積極的に見せよう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드러낸다冷遇したい現実を表わす

누군가를 불편하게, 누군가에게는 힘을 줄 수 있도록
誰かを不便に、誰かには力を集中できるように

모두의 문제다皆の問題だ

누구나 말할 수 있다誰でも話せる

누구나 말해야 한다

誰でも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

자기책임이 아니다自己責任でない

모자란 일부를 한계적으로 도와준

다(시혜적 복지)고 해결되지 않는

다足りない一部を限界的に助ける

(施惠的福祉)で解決されない

당사자 当事者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청춘콘서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밖의 청춘어쩌구저쩌구...--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다 当事者の声がない
누가 팬대를 잡고 있고, 누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가?
오직 ""(따옴표) 안에서만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의 목소리

왜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라졌는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로 막는 권위구조는 무엇인가? 当事者の声を遮る権威構造は何か?

내가 내 문제를 말한다. 내가 내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기반.

‘권’과 ‘비권’ 사이



주거권 쟁취 결사 투쟁

住居権争奪決死闘争

우리 광장에서 다시 만나요!

| 방구할 돈 없어 학교에서 살아요

| 部屋を借りる金がなくて学校で暮らす

| 일상적으로 만나는 텐트와 사건들

이 공동체는 왜 망하지 않고 계속되었을까?
| 공동체의 지속

2013~ 총 9호집의 두더지하우스 공급, LH부천청년주택 운영
누적 조합원 70명 (임주자 46명) / 평균거주기간 19.9개월

1호집(2013~2015)/월
공동체은행 빈고

2호집(2014~현재)/월세
공급자조합원차입

3호집(2014~2016)/월세
공급자조합원차입

4호집(2014~2017)/월
공급자조합원차입

5호집(2014~현재)/월세
공급자조합원차입



6호집(2015~2016)/월세
공급자조합원차입

7호집(2016~현재)/전세
공급자조합원차입/자체 기금
따뜻한사회주택기금

8호집(2018~현재)/전세
공급자조합원차입

9호집(2018.03 예정)/전세
따뜻한사회주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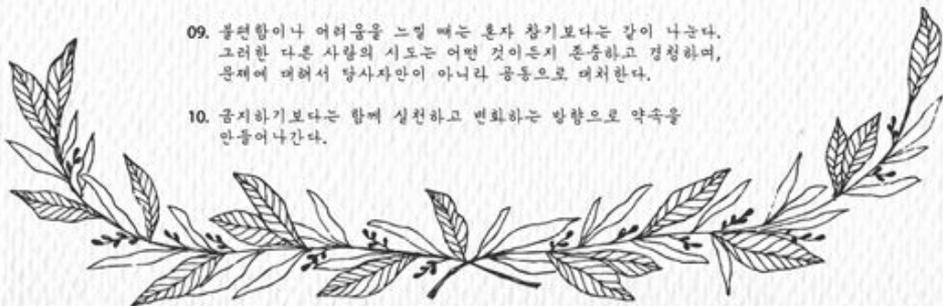
LH부천청년주택(2016~2018)
44호 운영중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게 당연해”



모두들 문화 약속문

01. 기사노동을 성별역할이나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02. 집이라는 공간을 내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집을 가꾸는 데 드는 시간과 힘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03. 자신이 더럽히고 어지러운 공간은 자신이 치운다.
04. 집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여 공간을 함께 누린다.
05. 우리의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학력,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06. 기본적으로 접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민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이위계에 의한 호칭문화를 지양한다.
0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모두가 존중 받는 공동체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08. 서로 다른 일상의 고민을 기억이 나누고 함께 발전해나간다.
09.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는 혼자 참기보다는 같이 나누는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시도는 어떤 것이든지 존중하고 경청하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10. 금지하기보다는 함께 실천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만들어나간다.



08. 서로 다른 일상의 고민을 기꺼이 나누고 함께 발전해나간다.

09.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는 혼자 참기보다는 같이 나눈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시도는 어떤 것이든지 존중하고 경청하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지금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

왜 **지금** 공동체의 생성과 지속을 고민할까?
|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주요 구성원들의 소진

초기 구성원들과 이후 구성원들 간의 차이

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기 어려울까?
| 공동체 생성의 어려움

왜 공동체는 여전히 **매력적인 제안**
즐거운 선택지가 되지 못할까?

꼬문뱅크의 확장 및 확산 전략

다음 <공동체은행 빈고 상임활동가>

NPO 꼬문뱅크 공유상태표

| | | | |
|-----------------------|----------------|------------------|------------------|
| 기존 부채 전환 1,103,129 | 예비금 291,042 | 토지/텃밭/농지 219,332 | |
| | 공유주거 200,259 | 공동카페/식당 200,259 | 공동 돌봄 시설 190,723 |
| | 놀이터/공원 152,578 | 쉐어하우스 123,970 | 휴양시설... |
| | 코하우징 143,042 | 공유사무실... | 게스... |
| | | | 마을... |



| | |
|--------------------|--------------|
| 부동산자산 전환 1,896,629 | 금융자산 737,210 |
| | 잉여금 276,581 |

빈고는 어떻게 가능했나?

- 공동체의 공간을 위해 함께 돈을 저축하자!
 - 돈이 돈을 버는 일은 없도록 하자!
 - 다른 공동체 또는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하자!
 - 공동체의 생성과 해소,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유연성을 갖게 하자!
 - 완전히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와 운영!
 - 함께 배우고 공부하면서 활동가들의 역량이 자란다!
-

빈고의 현재

- 10년. 안정성/효율성은 검증.
 - 출자자와 이용자의 분리현상
 - 공동체성의 약화
 - 공동체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데 한계
 - 매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임대하기에는 남는다
 - 지역에 뿌리내리기
 - 잉여금의 감소
 - 전업 활동은 요원한 상황
 - 고용과 잉여를 담당하는 생산 공동체의 필요성
-

빈고의 확장을 위한 과제

- 공동체와 공유지의 지속적인 생성
 - 공동체들의 연대
 - 조합원과 출자의 지속적인 확대
 - 조합원의 참여와 활동가의 재생산
 - 잉여금 감소에 대한 대응
 - 법적인 지위 획득?
 - 새로운 공유지 모델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 확장의 한계
-

꼬뮌뱅크의 확산?

- 건물 공동소유 주거공동체 (대구 그린집, 부천 모두들, 서울 빈둥)
- 공동체주택 건축(홍성 키키)
- 토지 공동소유 (빈땅)
- 마을까페(이따, 온지곤지, 레드박스)
- 마을 농장/작업장 (두물머리, 해남 미세마을)
- 활동공동체 (공룡, 모두들)
- 비영리단체 소유건물 (꿀잠+들, 인권센터, 노조 건물 등)
- 지역기반 금융공동체 (영등포 다람쥐회, 흥동 도토리회, 마포 은행나무, 천안 사이금고)
- 꼬뮌뱅크들의 생성
- 꼬뮌뱅크들의 연대

새로운 꼬뮌뱅크들?

- 빈고와는 구분된 법인의 필요성
 - 임대형 주거공동체를 넘어선 공유지의 확대
 - 지속적인 출자가 가능한 노동자들의 저축을 조직
 - 조직된 단체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꼬뮌뱅크들의 생성
 - 지역 공동체와 결합하는 꼬뮌뱅크
 - 비영리/반자본/탈자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연대
 - 빈고 시스템의 이식 또는 컨설팅
-

빈고와 노동/생산

$$\begin{array}{ccc} \text{수입} & - & \text{지출} & = & \text{잉여} \\ \text{노동자} & & \text{소비자} & & \text{공유자} \end{array}$$

-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공유자
- 주거를 중심으로 한 소비공동체가 기반
- 탈노동, 무직자들의 공동체
- 직업을 갖게되면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 노동거부에서 다른 노동, 다른 생산으로
- 노동운동, 노동조합과의 연대
- 농업공동체
- 생산자조합
- 좋은 일자리 알선? 공유?

탈자본공유지 사회적협동조합

- 토지와 건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 비영리 단체 사무실, 협동조합 주택, 지역 거점공간, 토지 등의 소유권을 탈환
 - 출자배당은 없고, 임대수입은 운영비와 적립금을 제외하고 전액 반자본공동체를 지원
 - 대사회적인 제안과 조직
 - 함께할 사람들?
 - 가능할까?
-

추가 발표 및 제안

토론 및 질의응답

뒷풀이